



진안군 부귀면 지사협, 5년 연속 밀반찬 지원나서

진안군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공동위원장 조봉진·박영춘)가 식사 해결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팔을 걷었다. 관내 고령가구, 장애인 가구, 1인 가구, 위기 가구들에게 밀반찬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지사협의 밀반찬 지원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귀면 지역특화사업으로 2021년부터 5년째 이어오고 있다. 2024년까지는 연 2회 지원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연 4회로 지원 횟수를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26일 진행된 1분기 지원에서는 지사협 위원들이 밀반찬 4종(배추김치, 시래기국, 파리고추말치볶음, 메추리알장조림)을 직접 조리해 28가구에 배달했다. 밀반찬 식자재는 구매하기도 했지만 지역업체인 마이담(대표 서수원)가 시래기국, 농업법인 늘푸른(대표 김정학)이 메추리알, 정종순 농가가 집진장과 간장을 후원해 지역이 함께하는 나눔의 모범도 함께 보여 줬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교육대, 재학생 대상 학생중심성장 리더특강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6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퍼어나는 꿈: 교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학생중심성장 리더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139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청주교육대학교 이혁규 교수(청주교대 前 총장,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를 초청, '교사 전문성'과 '미래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특강이 교육 전문성을 기르고 교사 학습공동체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특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만경읍 행정복지센터, 새마을금고 상생네트워크 협약

김제시 만경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만경새마을금고(이사장 김용택)와 이장단협의회(협의회장 최수범)가 '새마을금고 상생 네트워크 물품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만경새마을금고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금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추진한 전북 새마을금고 상생 네트워크 협약에 참여, 올해 초 지원물품(멀티쿠커 1.5L) 54개를 배부받았다. 이날 물품지원 협약식을 통해 지원물품 54개를 만경읍 행정복지센터 및 이장단협의회에 전달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불우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원동림 박사과정생, 국제 저명 저널 잇단 논문 게재

‘스마트시티’와 ‘균형 발전’ 연구 통해 차세대 연구자로 주목

전북대학교 원동림 박사과정생(도시공학과, 지도교수 황지욱)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도시계획 분야 학술지에 연이어 논문을 게재하며 차세대 연구자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원동림 박사과정생은 황지욱 교수와 공동수행한 ‘스마트시티 계획’과 ‘균형 발전’ 관련 연구 논문을 국제저명 학술지인 『Cities』(IF:6.0, CiteScore: 11.2, JCR: Q1(94.2%))와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IF:1.7, CiteScore: 3.9, JCR: Q3(44.2%))에 각각 제1저자로 게재했다. 특히 『Cities』에 게재된 논문은 스마트시티 정책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도시 소멸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정책 대안임을 최초로 검증한 연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과 지역 불균형 해소, 지방소멸 방지 등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평가다.



원동림 박사과정생



황지욱 교수

이어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에 실린 논문 '중간 규모 도시의 도시 축소 현상: 계획과 영향 요인'에서는 중국 중소 도시의 인구 구조가 도시 축소 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 요인보다 더 결정적이며, 도시 축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적으로 집합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원 박사과정생은 이미 석사 과정에서도 KCI 등재 학술지와 국제학술지(Current Urban Affairs)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며 도시계획 분야의 차세대 연구자로 주목받아 왔다. 원동림 대학원생은 "황지욱 교수님과 진행한 연구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를 심화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구조를 탐구하는 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정광운 교수팀, 전기변색 스마트 정보 암호화 소재 개발

세계적 학술지 표지논문 선정... 첨단 보안·위조 방지 기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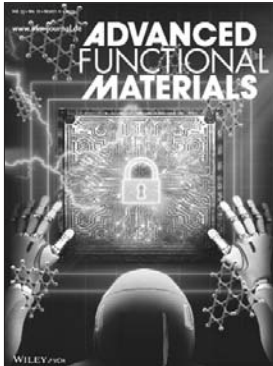
전북대학교는 정광운 교수(고분자나노공학과, 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 연구팀의 유동민 대학원생이 트리페닐아민 기반의 전기변색 물질을 이용해 광학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암호화 소재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재료과학 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18.5, 상위 4.1%)』의 2025년 최신호에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연구팀은 트리페닐아민 기반의 단량체를 합성한 뒤 나노수준에서의 배열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광중합 기술로 선택적인 패턴이 가능한 스마트 필름을 제작했다. 이 소재는 평상시에는 정보를 숨기고 있다가 특정 전압이나 편광 조건에서만 발광과 색상의 변화를 통해 정보를 드러내는 첨단 보안 기능을 구



정광운 교수



유동민 대학원생



현한다. 특히 정보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보안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구팀이 개발한 소재는 기존 암호화 방식보다 한층 진보된 보안성과 높은 응용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를 주도한 유동민 연구원은 "트리페닐아민 기반의 전기변색 스마트 필름이 보안 문서, 위조 방지, 개인 정보 보호 분야 등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나 플렉시블 디바이스 등 미래형 기술과 결합한 스마트 보안 장치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북전주농협, 2025년 수도작 생산농가 간담회 성료

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지난 26일 북전주농협 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수도작(친환경벼, 일반벼) 생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북전주농협 수도작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작년 수도작 사업에 대한 사업 운영 보고 및 벼 병해충 방제 교육과 시비 교육을 통하여 생산능력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이우광 조합장은 "오늘 간담회에서는 여러 유익한 얘기가 많았지만 특히 쌀 공급·수요 불균형으로 인한 쌀값 불안정성 해소를 위하여 친환경벼 재배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수도작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전주농협은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친환경 벼 약 1,400여톤, 일반벼 약 3,000여톤을 전량 수매하고 있으며, 이 중 친환경쌀을 전주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약 300여 개소에 전량 공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금동, '사랑의좁드리운동'으로 양곡이웃나눔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남원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서재석)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좁드리운동'을 통해 양곡 460kg(10kg 46포)을 지원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구, 독거노인 등 46가구에 26일부터 각 세대에 전달하고 있다. '사랑의 좁드리운동'은 매년 새마을금고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쌀을 한 줍씩 모으던 전통에서 시작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온정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며, 금동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 봄맞이 꽃길 조성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선열)가 27일, '아름다운 성덕, 꽃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 성덕면 행정복지센터 앞~성덕초등학교 구간 도로변에 철쭉(영산홍) 2,000본을 식재해 주민들에게 봄의 향연을 선물했다. 이번에 조성한 철쭉 꽃길은 연내 준공 예정인 성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및 '365 체육쉼터' 조성사업 사업 대상지에 인접해 주민 힐링공간은 물론, 지역 활력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선열 주민자치위원장은 "농촌에서는 봄이면 꽃구경보다는 농사일로 바쁜 실정인데, 주민들이 이렇게라도 아름다운 봄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